



## 13. 말이 나온 김에 SNS를 이용해 봐야겠다

**학습목표** '-(으)ㄴ/는 김에'를 사용하여 어떤 상황에 이어서 그것을 계기로 다음의 행위도 함께 함을 표현할 수 있다.

**학습내용** -(으)ㄴ/는 김에



생각해 봅시다



- 스마트폰의 기능에는 뭐가 있어요?
- SNS를 사용한 적이 있어요?



본문

(거실에서 엄마와 지호가 대화. 엄마의 손에 스마트폰이 들려 있다)

**지호** (엄마의 휴대폰을 보며) 엄마, 스마트폰 새로 사셨어요?

**엄마** 응. 쓰던 휴대폰이 고장 나서 새로 샀어.

**지호** (휴대폰을 만져 보며) 와~ 좋아 보여요. 스마트폰을 써 보시니까 예전 것보다 더 편리하고 좋지요?

**엄마** (생각하며) 음... 지난 번 휴대폰에 비하면 기능이 많아서 좋은 건 확실한데 사용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. 그래서 지금은 그냥 통화할 때나 사진 찍을 때만 써.

**지호** 에이~ 어렵더라도 스마트폰을 샀으면 기능을 적극적으로 다 이용하셔야지요. SNS를 이용하시면 엄마 친구분들과 소통하기도 편하잖아요.

**엄마** SNS? 그게 뭐니?

**지호**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데, 예를 들면, 페이스북 같은 거죠. 자기의 일상 생활이나 생각 등을 이야기하는 공간 말이에요.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하거나 정보를 공유할 수도 있어요.

**엄마** 아~ 요즘 그런 서비스를 많이 이용한다고 들었어.

**지호** 스마트폰을 산 김에 SNS를 시작해 보세요. 인맥을 쌓거나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데 아주 편리해요.

**엄마** 그래! 말이 나온 김에 나도 오늘 SNS를 이용해 봐야겠다.

### 도입 질문

1.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어요?
2. 스마트폰은 기존의 휴대 전화와 다른 기능이 뭐가 있어요?
3. 스마트폰의 어떤 기능을 자주 이용해요?
4. 스마트폰이 없다면 뭐가 제일 불편할 것 같아요?

### 본문 학습 순서

- 1) 도입 질문을 한다.
- 2) 본문을 듣기 전, 도입 그림을 보고 본문 내용을 유추해 본다.
- 3) 자막을 보지 않고 듣는다.
- 4) 이해 질문 1(포괄적인 내용 파악)을 한다.
  - 엄마는 무엇을 샀습니까? (답: 스마트폰)
  - 지호는 엄마에게 스마트폰의 어떤 기능을 이용하라고 말합니까?(답:SNS)
  - 엄마는 SNS 이용에 대해 어떤 반응입니까? (답: 적극적으로 이용하려고 한다.)
- 5) 질문 4)의 답을 염두에 두고 다시 듣는다.
- 6) 4)의 질문에 대한 답을 확인한다. 그리고 이해 질문 2(세부적인 내용 파악)을 한다.
  - 새로 산 스마트폰에 대해 엄마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? (답: 기능은 많지만 사용하기가 어렵다.)
  - SNS를 이용하면 좋은 점이 무엇입니까?(답: 인맥 쌓기, 사람들과 소통, 정보 공유)
- 7) 새 어휘를 설명한다.
- 8) 한 문장씩 듣고 따라 하게 한다.
- 9) 학습자가 본문을 읽는다. (혼자 또는 짹지어)
- 10) 상황에 맞게 감정을 실어 읽는다.

\*상황(학습자의 수와 학습 정도, 교실 상황 등)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.



## 내용 이해 질문

(1) 엄마는 스마트폰의 여러 기능을 잘 사용하고 있다. (O, X)

답 : (X) 엄마는 스마트폰을 사용하기가 어려워 전화를 받거나 사진 찍을 때만 사용한다고 했다.

(2) 엄마는 오늘부터 SNS를 사용해 보려고 한다. (O, X)

답 : (O) 엄마는 말이 나온 김에 오늘부터 SNS를 사용해 보겠다고 했다.



## 여휘

기능	功能	적극적	积极地; 热心地
소통하다	沟通, 交流	공간	空间
소셜 네트워크 서비스	社会化网络服务	공유하다	共享, 共有
페이스북	Facebook 社交网络服务网站)	인맥	人脉

### 기능: 하는 일, 작용

- 요즘 스마트폰은 정말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.
- 이 전자 사전에는 사전 말고 다른 기능이 별로 없네요.
- 세탁기가 오래 되어서 그런지 세탁 기능이 떨어진다.

### 적극적: 태도가 긍정적이고 스스로 먼저 하려고 함

- 학생들이 이번 연극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어요.
- 그 사람은 모든 일에 적극적이다.
- 그의 적극적인 자세가 마음에 든다.

### 소통하다: 막히지 않고 잘 통하다, 오해가 없이 뜻을 잘 통하다

- 경찰은 한쪽 길을 막고 다른 쪽으로만 소통하도록 신호를 했다.
- 언어가 달라서 외국인 친구와 생각을 제대로 소통할 수가 없어 답답했어요.
- 언어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수화로 자신의 생각을 소통한다.

### 공유하다: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 사람과 나누다

-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정보화 시대에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.
- 이 모임의 목적은 자신의 언어 공부 방법을 공유하는 것입니다.
- 이 기쁨을 전 국민과 공유하고 싶습니다.

### 인맥: 정치, 경제, 학문 세계에서 쌓아둔 사람들과의 관계

- 아직도 그 사회는 능력보다 인맥을 중요시한다.
- 그 사람은 사업에서 폭넓은 인맥을 형성하고 있다.
- 학교 인맥으로 승진한 사람이 있다던데 누구일까요?



## 문법학습

### -(으)ㄴ/는 김에

어떤 일에 이어서, 그것을 계기나 기회로 삼아 계획하지 않았던 다른 일도 함께 함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.

'청소한 김에 빨래도 하자': 청소를 이미 했으니 그 기회에 계획에는 없었지만 청소와 관계가 있는 빨래도 하자는 것을 나타낸다.

- ① 시장에 가는 김에 과일도 사 오세요.
- ② 청소를 하는 김에 빨래도 해야겠어요.
- ③ 백화점에 간 김에 신발도 새로 샀어.
- ④ 일찍 일어난 김에 운동을 좀 했어요.
- ⑤ 케이크를 먹는 김에 커피도 마시고 싶어요.

'-(으)ㄴ/는 김에' 동사 제시 순서

가다 : 가는 김에

먹다 : 먹는 김에

공부하다: 공부하는 김에

돕다: 돋는 김에

듣다 : 듣는 김에

부르다 : 부르는 김에

만들다 : 만드는 김에

### 문장 만들기

#### '-(으)ㄴ/는 김에'를 사용하여 선행문에 알맞은 후행문 만들기

- 떡볶이를 만드는 김에 \_\_\_\_\_.
- 숙제를 하는 김에 \_\_\_\_\_.
- 가구를 바꾸는 김에 \_\_\_\_\_.
- 우체국에 간 김에 \_\_\_\_\_.
- 한국에 놀러 온 김에 \_\_\_\_\_.
- 마음 먹은 김에 \_\_\_\_\_.

### 대화 연습하기

지나 : 오늘 옷 사러 백화점에 갈 거야?

유리: 응, 옷 사는 김에 구두도 하나 살까 해.

민: 소포 부치려 우체국에 다녀올게.

지호: 우체국에 가는 김에 내 편지도 좀 부쳐 줄래?

지호: 어머니, 책상 정리 다 했어요.

어머니: 그래? 그럼 책상 정리 시작한 김에 옷장도 좀 정리할래?

지나: 와! 쿠키도 만드시네요.

어머니: 응, 빵 만드는 김에 쿠키도 좀 만들려고 해.



### 1. 이미 일어났거나 일어날 상황에 이어서 그것을 계기로 다음의 행위도 함께 함을 나타낸다.

- 오랜만에 만난 김에 식사나 합시다.
- 말이 나온 김에 다음 달에 제주도에 갈까요?
- 비옷을 사는 김에 장화도 사자.
- 부산에 가는 김에 회도 드시고 오세요.
- 목욕을 하는 김에 목욕탕 청소까지 해 버렸다.

'-(으)느/는 김에'는 동사와 결합하며 동작의 완료성에 따라 '-(으)느 김에'와 '-는 김에'가 결정된다.

시장에 가다(미완료)>시장에 가는 김에  
일찍 일어났다(완료)>일어난 김에

### 2. '-(으)느/는 김에'는 후행절에 서술, 의문, 명령, 권유 등 다양한 문장에 쓰일 수 있다.

- 경주에 간 김에 가까운 부산에도 갔다.
- 경주에 간 김에 가까운 부산에도 가자.
- 경주에 간 김에 가까운 부산에도 가라.
- 경주에 간 김에 가까운 부산에도 가지 그랬어?

이 밖에도 '넘어진 김에 쉬어 가자'는 속담도 있다.

예) 넘어진 김에 쉬어 간다고 이번에 실직한 김에 아예 두세 달 쉬면서 천천히 준비하지 그래요?

### 3. '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'와 같은 속담은 우연히 운 좋은 기회에 하려던 일을 해치운다는 뜻이다.

-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부산에 온 김에 회나 먹고 가지요.

 연습

## 1. 빈 칸에 알맞은 말을 <보기>에서 골라 쓰십시오.

공유하는 기능 여태 소통할 적극적으로

- 1) 이 노트북은 기능이 많아서 좋아요.
- 2) 12시가 됐는데 여태 집에 안 오고 뭐 하니?
- 3) 이 자료는 모두 함께 공유하는 게 좋겠어요.
- 4) SNS를 하니 여러 사람과 소통할 수 있어 좋아요.
- 5) 좋아하는 친구에게 네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해 봐.

해설 : 1) 이 노트북은 기능이 많아서 좋아요.  
 2) 12시가 됐는데 여태 집에 안 오고 뭐 하니?  
 3) 이 자료는 모두 함께 공유하는 게 좋겠어요.  
 4) SNS를 하니 여러 사람과 소통할 수 있어 좋아요.  
 5) 좋아하는 친구에게 네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해 봐.

## 2. <보기>와 같이 빈칸에 알맞은 문장을 고르십시오.

## &lt;보기&gt;

서점에 \_\_\_\_\_ 한국어 책을 샀어요.

- ① 간 김에
- ② 가는 김에
- ③ 오는 김에

- 1) 집에 일찍 \_\_\_\_\_ 청소를 했어요.

- ① 온 김에
- ② 올 김에
- ③ 오는 김에.

해설 : ②에서 ‘올 김에’는 사용하지 않는 형태이며 미래를 나타낼 때 ‘-는 김에’의 형태를 사용한다. ③에서 ‘오는 김에’는 뒤의 청소를 한 행위보다 앞서므로 과거형으로 써야 한다.

- 2) \_\_\_\_\_ 친구 선물도 살까 해요.

- ① 쇼핑하는 김에
- ② 친구가 좋은 김에
- ③ 친구 선물을 사러 나온 김에.

해설 : ②‘-는 김에’는 동작 동사하고만 결합할 수 있다. ③은 ‘-는 김에’는 원래 하려던 것이 아닌 다른 목적의 내용이 후행에 와야 한다. 그러나 이 문장에서는 선행문과 후행문의 목적이 ‘친구 선물을 사다’로 같으므로 의미상 옳지 않은 문장이다.

## 1. 어휘 연습

- 2) = 지금까지, 이제까지
- 3) ‘-는 게 좋겠다’의 문형과 결합함에 주의한다.
- 5) ‘적극적인 N’, ‘적극적으로 AV’로 쓰임에 주의한다.

## 2. 문법 연습

- 문법 정보를 다시 확인한다.
- [-(-으)-는 김에]
- 기회, 계기
- 동사와 결합
- 동사의 완료성에 따라 '-(으)-는 김에'와 '-는 김에'가 결정됨
- 결합하는 동사가 문맥 상 완료된 상태인지 아닌지에 주의해야 한다.
- 예) 집에 일찍 왔다/ 청소를 했다  
 → 집에 일찍 온 김에 청소했다.  
 (O)  
 → 집에 일찍 오는 김에 청소를 했다. (X)
- 학습자가 답항을 보기 전에 스스로 문장을 연결해 보도록 지도한다.
- 학습자가 문장을 직접 연결할 때는 학습자 급에 알맞은 문형과 어휘를 사용하도록 한다.
- 예) 고급 학습자
  - ① 집에 일찍 와서 청소를 했어요.
  - ② 집에 일찍 온 김에 청소를 했어요.
  - ①, ② 모두 의미상 맞는 문장이지만 고급 학습자는 ①보다 ②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.

3) 빨래를 하는 김에 \_\_\_\_\_..

- ① 좀 쉬어야겠어요.
- ② 운동화도 빨아야겠어요.
- ③ 친구하고 전화할 거예요.

해설 : 원래 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빨래를 하면서 운동화도 빨겠다는 뜻이다. 빨래를 하면서 그것을 계기로 뭔가 관계 있는 다른 일도 더 하려는 것인데 ①의 후행문의 ‘쉬다’가 내용상 어울리지 않는다. '-는 김에'를 쓸 때는 선행문과 후행문의 행동에 연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③은 빨래와 친구하고 전화하는 것의 연관성이 없으므로 문장의 의미상 맞지 않는다.

### 3. 대화를 잘 듣고 <보기> 와 같이 이어지는 말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.

#### <보기>

(지나가 나가려고 함. 지나 엄마가 사과가 담긴 봉투를 주는 그림)

지나: 엄마, 유리네 집에 갔다 올게요.

- 엄마: \_\_\_\_\_
- ① 유리네 집에 가는 김에 사과 좀 사올래?
  - ② 유리네 집에 가는 김에 유리가 사과를 좋아할까?
  - ③ 유리네 집에 가는 김에 유리 엄마한테 사과 좀 갖다 줄래?

1) (민이 상자를 들고 있고 옆에서 지호가 편지 봉투를 내민다.)

민: 소포 보내러 우체국에 다녀 올게.

지호: \_\_\_\_\_

- ① 소포를 보내는 김에 내 편지도 보냈어?
- ② 우체국에 간 김에 네 편지도 가지고 왔어.
- ③ 우체국에 가는 김에 내 편지도 좀 보내 줄래?

해설 : '지호는 소포 보내러 우체국에 가는 민에게 다른 일을 부탁하고 있다.

①은 과거로 질문을 했기 때문에 맞지 않다. ②는 민이 우체국에 아직 가지 않았기 때문에 맞지 않는 내용이다.

\* 소포: parcel

2) (엄마가 쿠키를 만들고 그 앞에서 지나가 웃고 있다)

지나: 와! 빵도 만드셨는데 이제 쿠키도 만드시네요!

엄마: \_\_\_\_\_

- ① 응, 쿠키 만든 김에 좀 먹어 봤어.
- ② 네가 쿠키를 먹는 김에 좀 만들었어.
- ③ 응, 빵 만든 김에 쿠키도 좀 만들어 보려고 해.

해설 : 지나는 엄마가 쿠키를 만드는 것을 보며 말했다. ①과 ②는 엄마가 빵을 만들고 있다고 말한 지나의 말과 어울리지 않는 대답이다.

### 3. 대화 연습

- 자연스러운 담화를 표현할 수 있도록 돋는 연습이다.
- 정답 이외의 질문을 학습자가 스스로 만들어 보도록 한다.
- 예)
  - A. 오늘 옷 사러 백화점에 갈 거야?
  - B. 응, 옷 사는 김에 구두도 하나 살까 해.
  - B'. 응, 백화점에 가는 김에 근처에 있는 친구 회사에도 들를 거야.

3) (지나와 유리의 전화 통화 – 지나의 머리 위 말풍선에는 옷, 유리의 말풍선에는 구두 그림)

지나 : 오늘 옷 사러 백화점에 갈 거야?

유리: \_\_\_\_\_

- ① 응, 백화점에 간 김에 친구를 만났어.
- ② 응, 옷 사는 김에 구두도 하나 살까 해.
- ③ 응, 백화점에 간 김에 모자 구경 좀 했어.

해설 : 지나는 유리가 옷을 사러 백화점에 갈 거냐고 물었고 유리는 옷도 사고 모자도 살까 한다고 이야기한다. ①과 ③은 질문과 관계없는 과거형 대답이다.



## 과제

여러분은 언어를 배우러 유학을 간 적이 있습니까? 유학 간 나라에서 다른 것도 배워 본 적이 있습니까? 여러분이 앞으로 유학을 간다면 어느 나라에 갈 것인지, 그리고 그 나라에서 유학하는 김에 어떤 것도 배울 것 인지를 그 이유와 함께 써 봅시다.

- ‘-(으)ㄴ/는 김에’를 사용해야 한다.
- 문어체(‘-다, ㄴ/는다’)로 써야 한다.
- 400~600자 정도로 써야 한다.

## 예시답변

나는 한국어를 배우러 한국에 유학을 가고 싶다. 그리고 한국에 가는 김에 꼭 태권도도 배워 보고 싶다. 올림픽에서 태권도 하는 선수들을 봤는데 참 멋있어 보였다. 그리고 태권도를 배우면 위험할 때 자신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나 같은 여자들도 배우면 좋을 것 같다. 한국은 태권도의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한국말로 태권도를 배우면 더 좋을 것 같다.

<이하 생략> .....

## 도입 질문

- 유학을 간 경험이나 앞으로 갈 계획에 대해 생각해 본다.
- 어디로 무엇을 배우러 갈 것인가?
- 또 어떤 것을 할 것인가?

## 작문 지도

- 지시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.
- (문형, 문체, 길이)
- 글의 구성이 짜임새 있어야 한다. (처음-중간-끝)
- 단락이 나누어져 있어야 한다.
- 학습 수준에 맞는 문형과 어휘를 사용해야 한다.
- 맞춤법, 띄어쓰기, 문장부호를 정확히 지켜야 한다.



## 함께 풀어봅시다

## 1. ‘-(으)ㄴ/는 김에’를 사용하여 다음 문장을 완성하십시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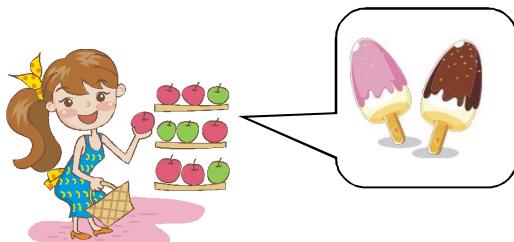
- 1) 오늘 네가 밥 \_\_\_\_\_ 커피도 사는 게 어때? (사다)
- 2) 백화점에 \_\_\_\_\_ 옷 좀 샀어요. (가다)
- 3) 물고기를 \_\_\_\_\_ 새우도 키워 봐. (키우다)
- 4) 오랜만에 친구를 \_\_\_\_\_ 같이 영화도 봐야겠어. (만나다)

## 2. 그림을 보고 대화를 완성하십시오.



- 1) 엄마: 어머, 지나야! 빨래도 했니?

지나: 네. \_\_\_\_\_ 빨래도 했어요.



- 2) 지나: 와! 아이스크림이다! 엄마가 사 오신 거예요?

엄마: 응. 시장에 \_\_\_\_\_ 우리 지나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도 사왔어.



- 3) 아빠: 아침 일찍 어딜 다녀오니?

지호: 일찍 \_\_\_\_\_ 운동 좀 하고 왔어요.



## 함께 풀어봅시다 (답안지)

### 1. '-(으)느/는 김에'를 사용하여 다음 문장을 완성하십시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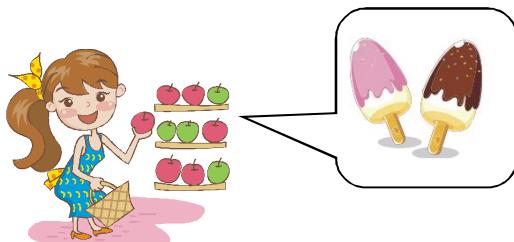
- 1) 오늘 네가 밥 사는 김에 커피도 사는 게 어때? (사다)
- 2) 백화점에 간 김에 옷 좀 샀어요. (가다)
- 3) 물고기를 키우는 김에 새우도 키워 봐. (키우다)
- 4)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는 김에 같이 영화도 봐야겠어. (만나다)

### 2. 그림을 보고 대화를 완성하십시오.



- 1) 엄마: 어머, 지나야! 빨래도 했니?

지나: 네. 청소하는 김에 빨래도 했어요.



- 2) 지나: 와! 아이스크림이다! 엄마가 사 오신 거예요?

엄마: 응. 시장에 간 김에 우리 지나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도 사 왔어.



- 3) 아빠: 아침 일찍 어딜 다녀오니?

지호: 일찍 일어난 김에 운동 좀 하고 왔어요.